

는 통로를 확보하였다.

나. 국내 생태문화도시 사례

국내 생태문화도시 관련 사업으로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에코시티 시범사업, 그린시티, 자연생태 우수마을 등이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U-Eco City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아름마을 가꾸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등 그 밖에 산림청 산촌 생태마을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등이 있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된 시범사업으로 시범도시, 시범마을, 계획비용지원도시, 성공모델지원사업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총 94개 대상지에서 시행하였다(국토연구원, 2012). 도시개발사업의 양적 성장 위주를 비판하며 도시정책을 환경, 문화, 역사적 측면에서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이 물리적 정비 위주의 개발 방식에서 질적 개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마을의 개념과 구성요소, 내·외부적 요인을 도출하였다. 마을에서 자본주의의 확산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의 주체인 주민들의 참여와 합의로 공동체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체계가 합리적이고 마을공동체의 결정사항에 대해 구성원들이 인정하고 결정하는 주민의사결정론을 통해 마을이 유지될 수 있다.